

여자 배구★들 광주에 집결한다

女프로배구 초청경기 오늘 개막

김주향·백목화·문정원·정선아
광주·전남 출신 선수 4명 눈길

광주 여자프로배구 초청 경기가 6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경기에는 광주·전남 출신 선수 4명이 참가하고 프로 선수로서 고향 팬들에게 첫선을 보이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출신으로 김주향과 백목화(이상 IBK기업은행), 문정원·정선아(이상 한국도로공사)가 초청 경기에 참가한다.

김주향은 현대건설 왼쪽 공격수로 전전후 플레이이다. 치평초-광주체육중고를 거쳐 2017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했다. 2018-2019 시즌 주전과 백업으로 22경기 49세트에 출전해 공격성공률 32.89%, 공격점유율 5.61%를 기록했다.

치평초 때부터 팀을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끈 그는 각 연령대 국가대표로 꾸준히 발탁되며 차세대 기대주로 인정을 받아왔다.

김주향은 2018-2019 시즌 뒤 기업은행으로 등지를 옮겼다.

송원여중과 송원여상을 졸업한 백목화는 중고교 시절 팀을 각종 전국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한 그는 KGC인삼공사 소속이었던 2015-2016 시즌을 끝으로 V-리그를 떠났고 실업팀을 거쳐 바리스타로 활동하다가 2년만에 돌아와 2018-2019 시즌을 소화했다.

문정원은 도로공사 오른쪽 공격수다. 왼손잡이로 2017-2018 시즌 우승, 2018-2019 시즌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송원

경기 일정

1일차 6일(금) 오후 4시	오후 3시 직선행사
1경기 도로공사 vs 기업은행	2경기 인삼공사 vs 현대건설
2일차 7일(토) 오후 2시	오후 1시 직선행사
1경기 인삼공사 vs 기업은행	2경기 도로공사 vs 현대건설
3일차 8일(일) 오후 2시	오후 1시 직선행사
1경기 기업은행 vs 현대건설	2경기 도로공사 vs 인삼공사

여중과 송원여상에서 배구를 한 그는 팀 해체로 목포여상으로 전학했다. 공격력과 함께 수비력도 좋아 2017-2018 시즌부터 리베로 임명육과 함께 서브 리시브를 전담했다.

올해 여자배구 국가대표에 합류해 2019 FIVB(국제배구연맹) 여자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예선 2주까지 소화했다.

태국에서 열린 2019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2차전에서는 5연속 서브 에이스를 기록해 '서브 여왕'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정선아는 문정원의 목포여상 후배다. 정대영-양효진을 이을 중앙 공격수로 기대가 높다. 201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고 도로공사에 입단했다. 당시 고교 최고의 거포 지민경(인삼공사) 대신 센터 정선아를 전체 1순위로 지명할 만큼 기대를 받고 있다.

데뷔 첫 해인 2016-2017 시즌에 적응기를 거친 정선아는 2017-2018 시즌부터는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며 팀 우승을 뒷받쳤다.

한편 이번 초청 경기에는 한국도로공사와 기업은행, 현대건설, KGC인삼공사 등 4개팀이 참가하며 매일 2경기씩 진행된다. 6일에는 도로공사-기업은행·인삼공사-현대건설, 7일 인삼공사-기업은행·도로공사-현대건설, 8일 기업은행-현대건설·도로공사-인삼공사 경기가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양기생기자 gungullove@srb.co.kr



경기 화성종합철산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도드람 V리그 IBK기업은행과 KGC인삼공사의 경기, 기업은행 백목화가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뉴스



광주 여자프로배구 초청 경기에 나서는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의 모습. 왼쪽부터 김주향, 백목화(이상 IBK기업은행), 문정원, 정선아(이상 한국도로공사).

광양여고 축구부, 국가대표 3명 배출

곽로영·김가연·김민지
AFC U-16 챔피언십 출전



곽로영

'여자 이강인'으로 불리는 곽로영(1년)을 비롯한 광양여고 축구부 3명이 U16 여자국가대표팀에 최종 선발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2019 AFC U16 여자챔피언십에 참가할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5일 발표했다.

이 중 현재 '전국 여자 고교축구 최강팀'인 광양여고에서 3명을 배출해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대표팀에 승선한 광양여고 축구팀 소속 3명은 공격수 곽로영, 김가연과 수비수 김민지(이상 1년)다.

특히 이번 U16 여자챔피언십 대회는 결승에 오른 두 팀만이 내년 인도에서 열리는 2020 U17 여자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 어느 대회보다도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는데 역점을 뒀고, 여기에 광양여고 선수 3명이 태극마크를 다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 6월 FIFA U20 월드컵에서 '정정용호'의 코치로 활약하며 한국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쓴 데 공헌한 인창수 감독은 이날 엔트리를 발표하

며 "곽로영은 이강인보다 여자대표팀 연령대에서는 2-3배 이상 잘하고, 영국 여자프리미어리그 첼시 레이디스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의 동 나이 때보다도 더 잘한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곽로영은 중학교 3학년의 나이로 지난해 우루과이에서 열린 2018 FIFA U17 월드컵에 참가해 유럽 선수들 앞에서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준 바 있다.

곽로영과 함께 '광양여고의 에이스'로 불리는 김가연, 김민지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0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U17 여자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FIFA 주관대회 첫 우승컵을 안겨줬던 '광양여고 선배' 백은미, 심단비(이상 25)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기 위해 달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기생기자 gungullove@srb.co.kr

류현진, 13승 또 무산

콜로라도전 4.1이닝 3실점
LA다저스, 7-3으로 승리

류현진(32·LA 다저스)이 또 다시 승리 사냥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등판, 4.1이닝 6피안타 4볼넷 5탈삼진 3실점 투구로 강판당했다.

최근 3경기 연속 패전투수가 된 류현진은 이날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류현진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투구폼도 흔들렸고, 장기간 제구력도 좋지 않았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해 시즌 13승 달성에도 실패했고, 평균자책점 역시 2.35에서 2.45로 높아졌다.

류현진은 7-3으로 앞선 5회 1사 후 강판됐다. 4점차 여유가 있었지만, 다저스는 구위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마운드에서 내렸다.

류현진은 1회초 맞쳐 잡는 피칭으로 콜로라도 타선을 잠재했다. 선두타자 트레버 스토리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낸 류현진은 다음 타자 찰리 블랙먼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놀런 아



레나도에게 3루 강습 타구를 허용했지만, 다저스 3루수 저스틴 터너의 좋은 수비로 인해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곧바로 이어낸 데스몬드를 유격수 앞 땅볼로 처리했다.

1회 패스트볼 계열로 승부한 류현진은 2회 패스트볼과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 투구 패턴에 변화를 줬다.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풀카운트 끝에 라이언 맥마흔을 스탠딩 삼진으로 잡아낸 류현진은 라이벌 타피어를 3구 삼진으로 처리했다. 다음 타자 개럿 헵슨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드루 부테라를 상대로 낙차 큰 커브로 삼진을 잡아냈다.

3회도 호투를 이어갔다. 선두타자 안토니오 센자텔라를 유격수 앞 땅볼로 처리한 류현진은 스토리에게 안타를 맞았다. 곧바로 후속타자 블

랙먼을 병살타로 처리했다. 다저스 유격수 코리 시거는 직선타를 잡아낸 후 1루에 공을 던져 스토리마저 아웃시켰다.

류현진은 4회 실점을 했다. 선두타자 아레나도에게 볼넷을 내준 류현진은 데스몬드에게 3루수 앞 땅볼을 허용해 1사 2루 위기에 빠졌다. 이어 맥마흔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았다. 타피어를 삼진으로 처리해 위기를 넘기는 듯 보였지만, 헵슨에게 볼넷, 부테라에게 안타를 맞고 1점을 더 내줬다.

7-2로 앞선 상황에서 5회 등판한 류현진은 선두타자 스토리를 3구 삼진으로 잡아낸 뒤 블랙먼에게 좌전안타를 맞았다. 이어 아레나도와 데스몬드에서 연속 안타를 맞고 강판됐다. 후속투수의 선방으로 자책점은 늘지 않았다.

류현진은 타석에서 1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1-0으로 앞선 3회말 무사 1루에서는 희생번트를 날려 추가 득점에 기여했다. 4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깨끗한 중전안타를 날렸다. 이어 작 퍼더슨의 투런 홈런 때 홈을 밟아 득점에도 성공했다. 시즌 2득점째, 시즌 타율은 0.136으로 높아졌다.

다저스는 1회말 퍼더슨의 리드오프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3회 시거의 적시타, 터너의 내야땅볼로 3-0을 만들었다. 이후 코디 벨런저의 적시타 및 벤티의 내야땅볼로 5-0으로 달아났다.

류현진이 4회초 2점을 내줬지만, 5회 퍼더슨의 투런 홈런을 앞세워 7-2로 도망갔다. 다저스는 7-3으로 승리했다. 뉴스